

한국판 단축형 어둠의 성격 4요소(SD4-K) 척도의 타당화 연구

이 주 원	유 정 아	송 원 영 [†]
차의과학대학교 임상상담심리대학원 석사 졸업	건양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석사 과정	건양대학교 심리상담치료학과 교수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 표본을 대상으로 ‘사회적으로 혐오스러운 성격’을 측정하는 어둠의 성격 4요소(SD4, Short Dark Tetrad)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고, 국내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혐오스러운 성격’이란, 즉각적인 임상적 기능 손상을 보이지는 않으나, 잠재적으로 기능 장애를 야기할 수 있으며 파괴적인 행동적 징후를 포함하는 성격적 특징인 성격의 어두운 측면을 일컫는다. 이러한 성격의 어두운 측면에 대한 측정은 비임상적 장면에서부터 병리적 양상을 보이는 임상적 장면까지 다양한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연구 1에서는 국내 표본을 대상으로 SD4척도를 우리말로 번안하고 탐색적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구성된 SD4-K의 통계적 속성을 점검하였다. 연구 2에서는 연구 1에서 확인한 한국판 SD4척도를 유관 개념을 측정하는 척도들과 비교하며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하고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연구 1에서는 요인별 일부 문항의 변동이 있으나 원척도와 동일한 4요인(마키아벨리즘, 나르시즘, 사이코패시, 사디즘)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측정 모형의 적합도는 안정적으로 나타났다. 연구 2에서는 한국판 SD4와 유관 개념을 측정하는 척도 사이에서 수렴 및 변별 타당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내적합치도, 반분신뢰도, 검사-재검사 신뢰도 등에서 일관성이 있고 신뢰할만한 수준의 척도임을 확인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점을 논하며 후속연구를 제안하였다.

주요어: 단축형 어둠의 성격 4요소, 마키아벨리즘, 자기애, 정신병질, 가학성, SD4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송원영, (32992) 충청남도 논산시 대학로 121 건양대학교 심리상담치료학과, Tel: 041-730-5414, E-mail: 1058@paran.com

서론

정상적 성격과 비정상적 성격을 구분하는 기준은 명확하지 않다. 극단적인 성격 특질에 대하여 성격장애라는 이름을 붙이기는 하지만 임상적으로 절단점을 명료하게 결정하거나 성격 특질에 대하여 도덕적인 가치를 논하는 것은 연구자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Allport, 1937; Frurham, Richards, & Paulhus, 2013; Lerbreton, Binning, & Adorno, 2006).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성격적 특질은 저마다의 사회문화적으로 다양한 이유에서 바람직하지 않게 여겨진다(Hogan & Hogan, 1997). 바람직한 성격 특질은 개인의 정체성을 중요시 여기는지 또는 타인과의 관계나 집단의 정체성을 중요시 여기는지와 같은 각 사회마다 규정된 기준에 의해 상이하게 개념화될 수 있다.(Mulder, 2012). 이러한 맥락에서, Paulhus와 Williams(2002)는 성격의 특징을 병리적인 차원에서 파악하기보다는 사회적인 수용성이라는 차원을 고려하여 일탈된 정도가 두드러지는 성격의 ‘어두운 측면’(dark personality)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특히, 그는 Kowalski(2001)가 언급한 ‘사회적으로 혐오스러운 성격’(socially aversive personalities)에 주목하였다. ‘사회적으로 혐오스러운 성격’은 임상적 기능 손상을 즉각적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잠재적으로 기능 장애를 야기할 수 있고 파괴적인 행동적 징후를 포함하는 성격적 특징으로 주로 ‘정신병질’, ‘악의’, ‘자기애’, ‘반사회성’, ‘편협성’, ‘경계성’, ‘탐욕’ 등이 해당되며, 이러한 특징들은 비교적 지속적인 경향성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Ali & Chamorro-Premuzic, 2010; Lynam & Widiger, 2001; Miller, Lynam,

Widiger, & Leukefeld, 2001; Widiger, Lynam, Miller, & Oltmanns, 2012; Widiger & Trull, 2007).

성격의 어두운 측면에 대한 논의는 다양한 장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조직 관리 장면에서, 리더나 조직원이 독단적인 행동으로 인하여 조직에 부적절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의 설명에 성격의 어두운 측면이 유용할 수 있다(Furnham, 2010; Harms, Spain, & Hannah, 2011; O’Boyle, Forsyth, Banks, & McDaniel, 2012). 성격의 어두운 측면은 지능이나 개인의 매력과 연합하여 해당 개인이 조직 내에서 리더가 되는 데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다만, 다른 조직원들에 비해 조직 내에서 인정을 받고 승진하는 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나 다른 조직원들과의 원만한 관계 유지에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한다(Furnham, 2010; Kaiser & Hogan, 2007). 한편, 연인 관계에 있어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성격의 어두운 측면 요소들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성별에 따른 차이를 기반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비교적 단기적이고 충동적인 만남을 추구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시사된다고 알려져 있다(Furnham & Trickey, 2011; Jonason, Koenig, & Tost, 2010; Jonason, Li, Webster, & Schmitt, 2009; Paulhus & Williams, 2002). 이성관계에서 흥미로운 점으로는 정신병질 성향이 높은 경우,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만남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마키아벨리즘 성향이 높은 경우, 애정이나 사랑이 아닌 특정한 목적을 위해 의도적이고 전략적으로 만남을 형성하고 애정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Jonason & Kavanagh, 2010;

Jonason, Li, & Buss, 2010).

어두운 성격은 위험 행동과 관련하여 충동성과 감각 추구 성향이라는 특징을 보인다. 특히 도박 행위나 지연 보상 행위와 두드러진 연관성이 있다(Crysel, Crosier, & Webster, 2013). 이들은 탈억제, 적대감 경향성을 공통적으로 보이며, 물질 사용 장애와의 관련성을 보인다. 특히 충동성, 처벌에 대한 둔감성과 같은 행동 통제에서의 문제는 중독의 지속성에 영향을 미쳐 강박적인 중독 행위를 유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üchel et al., 2017; Everitt & Robbins, 2016). 또한 자기애와 정신병질 성향은 물질 사용 장애뿐만 아니라 정신장애에 있어서 외현화 증상을 동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otov, Gamez, Schmidt, & Watson, 2010; Kotov et al., 2017). 성격의 어두운 측면은 명백한 일탈 행위와도 관련이 있다. 정신병질은 성격의 어두운 측면 중 대부분의 반사회적 온라인 행위와 연관성이 크고, 이는 ‘충동성’과 ‘공감의 결여’를 기반으로 행위를 통한 즉각적인 만족과 관계 단절이 야기되는 잔인성의 결과로 나타나는 경향으로 볼 수 있다(Pina, Holland, & James, 2017).

어두운 성격을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12문항으로 만들어진 ‘더러운 12(Dirty Dozen, DD)’ 척도(Jonason & Webster, 2010)와 ‘단축형 어둠의 3요소(Short Dark Triad: SD3)’ 척도(Jones & Paulhus, 2014)가 있다. 두 척도는 어두운 성격을 짧은 문항으로 잘 측정해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심리측정적 속성상 SD3가 DD보다 나은 평가를 받고 있다(Maples, Lamkin & Miller, 2014). SD3는 사회적으로 혐오스러운 행동 양상 중 가장 의미있게 두드러지는 마키아벨리즘, 자기애, 정

신병질을 각각 9문항씩 총 27개 문항으로 측정한다. 마키아벨리즘 개념의 주요소는 교묘한 행동, 이기심, 타인에 대한 착취, 도덕성 결여이고, 자기애는 과대함, 이기주의, 자기 지향성을, 정신병질은 충동성, 반사회적 행동, 공감과 양심에 있어서 가책의 결여를 주된 요인으로 볼 수 있다(Christie & Geis, 1970; Foehn, Koan, & Jonason, 2019; Hare, 1983; Raskin & Hall, 1979). 이 척도는 한국에서도 타당화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자기애와 마키아벨리즘-사이코패스의 2요인 구조로 수정 발표되었다(박종철 외, 2021). 이 척도들을 통해 진행된 연구들에 대한 메타분석은 어둠의 3요소는 반사회적 행동 및 공격성이나 비행과 일관된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였고(Muris et al., 2017), 11개국의 청소년과 초기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SD3가 섹스팅을 비롯한 성적인 문제와 연관이 있음을 밝혀서 개념의 포괄성을 다양하게 입증하였다(Morelli et al., 2021).

SD3의 개발자들은 보다 광범위하게 성격의 어두운 측면을 측정하기 위해 기존의 세 가지에 하나의 요인을 더 추가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악의’, ‘경계성’, ‘적대감’ 등의 특질을 검토하였고(Buckels, Jones, & Paulhus, 2013; Craker, & March, 2016; Johnson, Plouffe, & Saklofske, 2019; Plouffe, Saklofske, & Smith, 2017), 그 결과 ‘가학성(Sadism)’을 네 번째 요소로 결정하였다. 가학성은 첫째, 성격의 어두운 측면 요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냉담함(callousness) 또는 공감 능력의 손상(impaired empathy)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었고, 둘째, 사회적으로 혐오스러운 성격 중 ‘타인을 해하면서 느끼는 원초적 쾌락’이라는 고유한 특성을 추가해주는 의미가 있었다.

이들은 4요소를 개념화한 후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로 ‘단축형 어둠의 성격 4요소 척도(Short Dark Tetrad, 이후, SD4)’를 개발하였다(Paulhus, Buckels, Trapnell, & Jones, 2021). 새로 추가된 가학성은 정신병질, 마키아벨리즘과는 중등도의 상관을, 자기애와는 약한 상관을 보이면서 안정된 요인구조를 보여서 SD4가 심리측정적으로 적절함을 증명하였다. 또한 개발자들은 가학성이 추가되면서 어둠의 성격과 부적응과의 상관성이 높아짐으로써 어두운 성격이 갖는 내적 불편감이 측정되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SD4는 성적인 문제와의 연관성에서도 개념적으로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 마키아벨리즘, 정신병질, 가학성은 대부분의 반사회적인 온라인 행위(ex. 사이버 괴롭힘, 사이버 트롤링, 동의 없는 성적 이미지 및 영상 전송 등)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oor & Anderson, 2019). 그 중 새로 추가된 ‘가학성’은 사이버 괴롭힘, 사이버 스토킹과 연관성이 높으며, ‘마키아벨리즘’은 병리적으로 SNS를 활용하는 사용자에게서 관련성을 보였다(Egan, Hughes, & Palmer, 2015; Van Geel, Goemans, Toprak, & Vedder, 2017). 국내에서도 SD4는 아직 타당화되지 않은 상태로 일부 활용되었는데, 월슨 성적 공상 질문지와 상관성이 높음이 보고되었고(이주원, 2021), 디지털 성범죄 피해 경험에 있는 사람에 대한 유의미한 예측 변인으로도 나타났다(송원영, 2021).

이처럼 성격의 어두운 측면은 정상성이 부각되는 장면에서부터 일탈성이 나타나는 장면에 이르기까지 주요한 관련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국내외의 관심이 높아지는 변인이다. 이에 이미 타당화가 진행된 SD3뿐 아니라(박종철 외, 2021),

원저자들이 이를 보완하여 어두운 성격을 측정하는 가장 적합한 측정도구로 제안한 SD4(Paulhus et al., 2021)를 한국 실정에 맞게 타당화하여 관련 연구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SD4의 구성요소인 어두운 성격의 4가지 측면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마키아벨리즘적 성격 특질은 목표한 바를 이루고자 하는 동기의식이 높으며, 그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비도덕적인 수단을 사용하거나 타인을 조작하고 착취할 수 있는 냉소적인 성격적 특징이다(Corral & Calvete, 2000; Den Hartog & Belschak, 2012). 이러한 마키아벨리즘적 성격 특질은 권력자들이 그들의 목적을 이루고자 자신을 따르는 이들을 어떻게 조종하고 길들여 이용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탐구가 시작되었다(Christie & Geis, 1970; Jones & Paulhus, 2014). 특히, 많은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주된 특징은 겉으로는 똑똑하고 성과가 뛰어난 사람처럼 보이나, 그러한 결과를 얻는 과정에서 타인을 착취할 가능성이 크고, 목적을 이룰 수 있다면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의 결여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arber, 1998; Barnett & Thompson, 1985; Jakobwitz & Egan, 2006).

자기애적 성격 특질은 타인의 가치에 비해 자신의 가치를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높이며, 이 과정에서 자존감을 높이고 유지하고자 타인을 착취하는데 죄책감이 결여된 모습을 보이며, 외부의 인정을 요구하는 성격적 특징이다(Campbell & Foster, 2007; Sanjeev, Sehrawat, & Santhosh Kumar, 2019; Weiser, 2015). 더욱이, 타인을 착취하면서 자신을 과시하고 스스로에게 높은 가치를

부여하면서도, 자신을 향한 외부의 부정적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취약한 모습도 동반되어 나타나곤 한다(Blais & Little, 2010). 이러한 자기애적 성격 특질이 높은 사람일수록, 성취적이고 업무에서 높은 성과를 보이는 유능한 인상과는 달리, 그 이면에는 거만하고 가식적이며,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고 이에 대한 도덕적 책임감의 결여를 보이는 등 주변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 지속을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Brown, Sautter, Littvay, Sautter, & Beames, 2010; Kashmiri, Nicol, & Arora, 2017; Paulhus, 1998).

정신병질적 성격 특질은 흔히 사이코패스라는 용어로 언급되기도 하며, 이기적 행태, 냉담성, 죄책감 및 공감 능력의 결여, 충동성, 위법성, 사회 규범에 대한 반복적인 저항 등을 보이는 일종의 중후군이라고 할 수 있다(Furnham et al., 2013; Marcus, Fulton, & Edens, 2013). 정신병질적 성격 특질의 주된 특징 중 하나는 편도체와 안와전두피질의 결합과 같은 신경학적 문제로 인하여, 정서적 자극을 처리하는 것이 미숙하며, 반응 조절의 어려움을 겪으며, 착취적 행동을 함에 있어 특정한 이유 없이 충동적으로 저지르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ettison, Mahmut, & Stevenson, 2013; Kosson, 2009; Mitchell, Colledge, Leonard, & Blair, 2002; Moreira, Azeredo, & Barbosa, 2019; Patrick, 1994). 이러한 정신병질 성격 특질이 높은 사람일수록, 타인이 처한 상황과 그 상황에서 느끼는 그들의 정서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으며, 자신의 목적과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타인을 희생시키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지 못할 여지가 많다(Jonason & Krause, 2013; Marcus et al., 2013; Patrick,

Hicks, Krueger, & Lang, 2005).

가학적 성격 특질은 타인에게 해를 입히거나 해가 가해지는 상황을 관망하는 것을 즐기는 양상을 보이며, 주로 신체적, 언어적 공격성을 내포하는 것이 전형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다(Paulhus & Jones, 2015).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특질이 높은 사람은 단순히 쾌락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경제적 압박, 권력 행사 등을 통하여 자신의 지배력을 자각하고자 신체적 및 심리적 고통을 가하는 가학적 행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hester, DeWall, & Enjaian, 2019; O'Meara, Davies, & Hammond, 2011; Pfattheicher, Keller, & Knezevic, 2019). 즉, 이러한 가학적 성격 특질을 보이는 사람들은 위해를 입히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위해를 입힘으로써, 자신이 위해를 입는 사람과 그 상황을 지배하고 있다는 통제감을 자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Buckels, Trapnell, Andjelovic, & Paulhus, 2019; Southard, Noser, Pollock, Mercer, & Zeigler-Hill, 2015).

이 연구는 위와 같은 정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어둠의 성격 4요소를 신뢰롭고 타당한 척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타당화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연구는 두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연구 1은 척도를 번역하고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통계적 속성을 점검하였고, 연구 2는 한국판 척도를 다른 척도들과 함께 실시하여 타당도를 검증하고 각종 신뢰도를 산출하였다.

연구 1.

방법

연구 대상

만19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전체 응답자는 총 634명으로 여자 315명(49.7%), 남자 319명(50.3%)이며, 연령은 20대 191명(30.1%), 30대 190명(30.0%), 40대 158명(24.9%), 50대 95명(15.0%)으로 확인되었다, $M=37.24$, $SD=10.33$. 참여자는 설문조사회사를 통해 온라인 설문조사로 실시하였으며 응답자들에게는 연구 참여에 대한 안내를 고지하여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응답을 받아 수집하였다. 설문조사회사가 패널과 미리 계약한 보상을 제공하였다.

연구 절차

SD4를 우리말로 번안하여 타당화하기 위해 SD4의 저자인 Paulhus의 동의를 받은 후 영어와 우리말에 능통한 심리학 석사 및 박사과정생과 함께 우리말로 번역하였고, 번역한 내용을 토대로 이중 언어가 가능한 석사 및 박사과정 2인에게 역번역 과정을 거친 후 최종 문항을 확정하였다. 확정된 최종 문항을 사용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 결과에서 빈도, 최소값, 최고값, 평균, 표준편차 등을 고려하여 극단치를 보이는 응답자나 일부 응답을 미완성으로 제출한 경우는 제외하고 연구에 사용할 표본을 정하였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614명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참가자의 참가번호를 짝수와 홀수로 나누어 각 307명

씩 탐색적 및 확인적 요인분석에 사용하였다. 첫째 307명의 자료를 통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SD4의 요인구조를 확인하였고,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확정된 요인구조를 토대로 두 번째 307명의 자료를 활용하여 내적 합치도 계수와 요인구조의 적합도를 확인하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들을 Jamovi 2와 AMOS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집단 구성원의 인구통계학적 구성을 확인하였다. 인구통계학적 변인에는 성별, 연령, 최종 학력을 포함하였다. 둘째,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SD4의 요인구조가 적합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표준적합도(Kaiser-Meyer-Olkin Measure)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지표를 확인하였다. 셋째, 모형추정을 위하여 주축 요인분해법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직접 오블리민 방법으로 사각회전을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요인 간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사각회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서원진, 이수민, 김미리혜, 김계중, 2018). 넷째,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분석 검증을 위하여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를 확인하였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의 SD4 요인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AMOS를 통해 분석한 후,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cker-Lewis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지표를 산출하여 검증하였다. 일반적으로 CFI(comparative fit index) 지표는 0.09 이상일 경우, 매우 좋은 모형 적합도라고 할 수 있다(Hu & Bentler, 1999;

Lomax, 2013). TLI(Tucker-Lewis index) 지표는 1에 가까울수록 좋은 적합도인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표본 크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모형이 간명할수록 적합도가 좋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Tucker & Lewis, 1973). 마지막으로 RMSEA 지표는 0에서 1까지의 범위를 가지며 0에 가까울수록 좋은 모델로 판단하며, 0.8보다 클 경우, 적절치 않은 모델로 간주할 수 있다(MacCallum & Austin, 2000).

결 과

탐색적 요인분석

SD4의 요인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전체 응답자의 응답에 대하여 사각 회전을 이용한 주축요인 분해법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307명의 응답자료가 요인분석을 실시하기에 적절한지를 알아보 고자 KMO의 표준적합도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지표를 확인하였다. 일반적으로 KMO의 표준적합도는 .80이상일 경우 적합도가 높고 .90이상일 경우 매우 높은 것을 의미한다.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의 KMO 표준적합도 지수는 .84로서 적합도로서의 적절성이 준수하였으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지수에서 요인분석에 적합한 자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chi^2 = 3092$, $df = 378$, $p < .001$.

일반적으로 요인 수는 고유값(eigenvalue), 스크리도표, 누적 분산비율 등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요인을 구성하기 위한 문항의 부하량은 .30 이상이면 유의한 변수로 고려하고, .50이 넘으면 높은 수준의 유의성을 가진 변수로 고려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 다루는 원척도와 동일한 4요인으로 고

정하여 하되, 국내 표본으로 요인구조를 판별하였을 시 하위 문항의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에, 요인분석과 내용분석을 토대로 중복 요인에 포함되는 일부 문항(Mach 7, Narc 7, Psyc 4, Sadi 5, Sadi 7)을 삭제하여 기존의 SD4에서 제시하고 있는 4가지 요인구조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개념적으로 독립된 문항들을 구성하였으며, 그 결과 각 요인별 대응하는 문항 군집이 원척도와 동일한 문항 구성으로 나타났다. 기술통계와 척도 간의 상관 및 요인분석을 표 1에 제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본 연구에서 확인한 SD4의 4가지 하위 요인을 일반화할 수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고, 이를 그림 1에 제시하였다. 요인의 모형 일반화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CFI, TLI, RMSEA 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TLI와 CFI는 .9이상 일 때, 좋은 적합도 지수로 알려져 있다. 또한, RMSEA는 .05이하 일 때 좋은 적합도, 0.08이하 일 때 괜찮은 적합도로 해석한다. 표 2에 따르면 이 연구에서의 CFI, TLI, RMSEA에 기반한 연구 모형(4 요인)은 타당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표 1. 척도의 요인 부하량 및 하위 요인 간 상관 분석

문항 내용	요인					
	1	2	3	4		
Mach 1 남에게 자신의 비밀을 알리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0.400					
Mach 2 무슨 수를 써서라도 중요한 사람들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0.435					
Mach 3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타인과의 직접적인 충돌은 피해야 한다.	0.690					
Mach 4 뜻대로 하기 위해서는 저자세를 취해야 한다.	0.436					
Mach 5 상황을 조종하는 것은 계획을 세워야 한다.	0.556					
Mach 6 아침은 타인을 내 편으로 만드는 좋은 방법이다.	0.378					
Mach 7* 나는 교묘한 계획을 성공시킬 때 좋다.	0.490			0.307		
Narc 1 사람들은 나를 타고난 리더로 본다.		0.689				
Narc 2 나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독특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		0.752				
Narc 3 내가 없으면 그룹 활동은 무미건조해지는 경향이 있다.		0.653				
Narc 4 언제나 사람들이 알아주기 때문에 내가 특별하다는 것을 안다.		0.676				
Narc 5 나는 몇 가지 특출한 자질을 가지고 있다.		0.807				
Narc 6 나는 특정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것 같다.		0.779				
Narc 7* 나는 가끔 자랑하기를 좋아한다.	0.329	0.358				
Psyc 1 사람들은 종종 내가 통제 불능이라고 말한다			0.550			
Psyc 2 나는 권위와 그들의 규칙에 맞서 싸우는 경향이 있다.			0.464			
Psyc 3 나는 나와 같은 성별과 연령의 사람들보다 많이 싸웠다.			0.724			
Psyc 4* 나는 먼저 몰두하다가 나중에서야 질문을 하는 경향이 있다.			0.245			
Psyc 5 그동안 법률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왔다.			0.588			
Psyc 6 나는 가끔 위험한 상황에 빠진다.			0.665			
Psyc 7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은 항상 후회한다.			0.324			
Sadi 1 주먹다짐을 보는 것은 나를 흥분시킨다.				0.524		
Sadi 2 나는 격렬한 영화와 비디오 게임을 정말 즐긴다.				0.716		
Sadi 3 바보들이 실수 하는 걸 보면 재밌다.				0.469		
Sadi 4 나는 격렬한 스포츠를 즐겨 본다.				0.630		
Sadi 5* 교통 받아 마땅한 사람도 있다.	0.421					
Sadi 6 나는 SNS에서 단지 재미를 위해 나쁜 말을 했었다.	0.311			0.349		
Sadi 7* 나는 말만으로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줄 수 있다.	0.325					
	전체	Mach	Narc	Psyc	Sadi	
기술통계	<i>Mean</i>	2.43	3.05	2.61	2.18	1.88
	<i>SD.</i>	0.91	0.93	0.89	0.90	0.95
	전체	1				
상관분석	Mach	0.581***	1			
	Narc	0.687***	0.107***	1		
	Psyc	0.768***	0.241***	0.407***	1	
	Sadi	0.706***	0.312***	0.253***	0.455***	1

주 1. Mach 마키아벨리즘, Narc 자기에, Psyc 정신병질, Sadi 가학성.

주 2. 요인부하량은 .3 이상인 값만 표기함

주 3. 문항번호 뒤의 *는 삭제한 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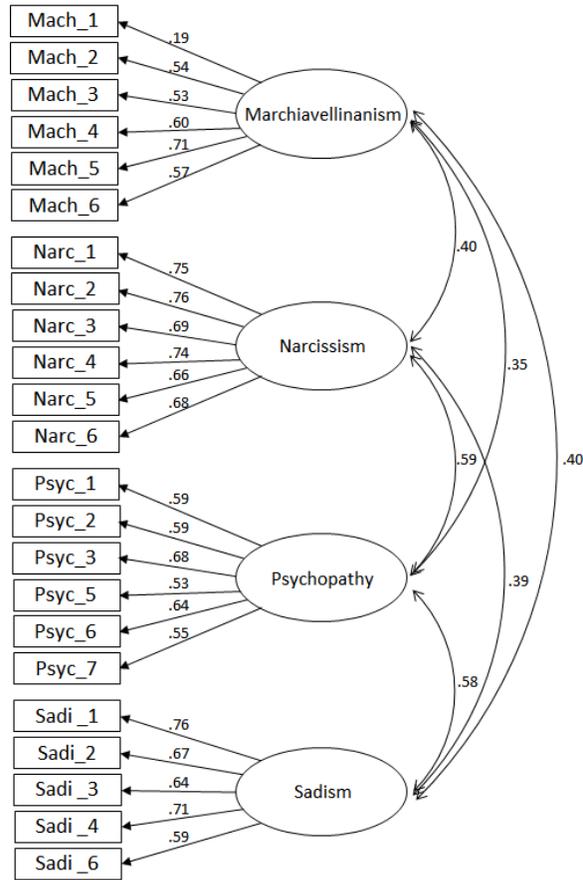


그림 1. SD4 최종 문항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표 2. SD4의 모형 적합도 지수

χ^2	<i>df</i>	<i>p</i>	<i>CFI</i>	<i>TLI</i>	<i>RMSEA</i>
451.743	218	<.001	0.907	0.892	0.059

주 1. CFI comparative fit index,
 TLI Tucker-Lewis index
 RMSEA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논 의

SD4에 대한 국내 표본 요인 분석 과정에서 요인 구성에 적합하지 않은 일부 문항들을 삭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Mach 7(나는 교묘한 계획을 성공시킬 때 좋다)은 요인이 가학성 요인에도 부하량이 높았다. 이는 본래의 요인에 더 높은 부하량이 있기는 하였으나, 다른 문항들은 전략이나 방법을 서술하는 반면 이 문항은 '좋다'라는 선호를 표하는 서술이 들어 있어서 고통을 가하는 것을 좋아하는 가학성향과도 유사하게 나타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다. Sadi 5(고통 받아 마땅한 사람도 있다), Sadi 7(나는 말만으로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문항은 마키아벨리즘 요인에 소속되었다. 나머지 다섯 문항이 직접적인 좀 더 직접적인 공격적 행동을 의미하는 것에 반해 생략된 두 문항(Sadi 5, Sadi 7)은 가능성에 대한 서술이어서 의도에 대한 추정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인의 경우 서양인과 달리 결과가 좋지 않으면 의도도 좋지 않을 것으로 추정한다는 비교문화연구(박주화, 조광수, 2014)를 참고하면 직접적인 가해행위가 아닌 상황을 관망하거나 가해를 용인하는 덜 직접적인 행동이 착취나 위해를 의미하는 마키아벨리즘으로 묶인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겠다. 한편 Narc 7(나는 가끔 자랑하기를 좋아한다) 문항은 본래의 자기에 요인 이외에 마키아벨리즘 요인에도 부하되었다. 이는 한국적 문화에서 자랑이 자기 자신에 관한 이야기일 뿐 아니라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있고, 때로 의도를 가지고 자랑을 하는 경우도 있음이 마키아벨리즘의 요인과의 관계성을 높인 것으로 추정된다. 마지막으로 Psysc

4(나는 먼저 몰두하다가 나중에서야 질문을 하는 경향이 있다)문항은 요인 부하량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몰두가 다소 긍정적으로 여겨지고 질문은 잘 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문화에 따라 다른 요인들과 다르게 해석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향후 우리 문화에 맞는 행동이나 표현으로 재차 번안되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보인다. 삭제된 문항들에 대한 비교문화적 관점은 향후 이 개념들의 정교화를 위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Mach 1의 경우 확인적 요인분석에서의 적재량이 다소 낮았지만, 전체적인 적합도가 적절하고, 문항의 수를 최대한 유사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 그대로 포함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국내 표본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SD4-K는 각 6문항의 마키아벨리즘, 자기에, 정신병질과 5문항의 가학성으로 구성되었다. 결과적으로 기존의 4요인을 유지하되, 기존의 28문항에서 요인별 문항 구성 수가 일부 줄어든 23문항으로 확정되었다. 원칙도가 네 요인 모두에서 각 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28개의 규칙적인 문항 수를 보이는 것에 비하면 아쉬운 결과이지만, 5개 문항을 삭제한 후 비슷한 정도의 요인 안정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어둠의 성격 4요소는 한국에서도 각기 고유한 개념적 타당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요인구조의 안정성은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재차 확인되었다. 표본 수의 영향으로 인하여 유의하게 산출되는 경향성이 있는 χ^2 검증에서는 유의미한 수치를 보였지만, 적합도 지수는 CFI와 RMSEA에서 적절한 수준이었고, TLI도 받아들여질 만한 수준이었다. 따라서 이 결과는 한국판 SD4가 적절한 문항과 요인구조로 구성되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연구 2.

방 법

연구 대상

연구 2의 자료는 두 차례에 걸쳐 수집되었다. 1차 조사에서는 만 20세에서 69세까지의 성인 322명을 대상으로 하여 SD4와 강간통념 수용도, 갈등척락척도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인구통계학적 구성은 여자 164명(50.9%), 남자 158명(49.1%)이며, 연령은 20대 60명(18.6%), 30대 62명(19.3), 40대 65명(20.2%), 50대 66명(20.5%), 60대 69명(21.4%)이었다. 2차 조사에서는 만 20세에서 69세까지의 성인 331명을 대상으로 하여 SD4와 공격성 척도, 대인관계반응성 척도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인구통계학적 구성은 여자 170명(51.4%), 남자 161명(48.6%)이며, 연령은 20대 60명(19.9%), 30대 60명(19.9), 40대 68명(20.5%), 50대 62명(18.7%), 60대 69명(20.8%)이었다. 표집의 일부(108명)를 대상으로 4주 간격의 검사를 실시하여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산출하였다. 참여자는 설문조사회사를 통해 온라인 설문조사로 실시하였으며 응답자들에게는 연구 참여에 대한 안내를 고지하여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응답을 받아 수집하였다. 설문조사회사가 패널과 미리 계약한 보상을 제공하였다.

측정 도구

한국판 어둠의 성격 4요소 척도(SD4-K). 한국

판 어둠의 성격 4요소 척도(이하, SD4-K)는 Paulhus 등(2021)이 개발한 척도를 연구 1을 통해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총 23문항으로, 마키아벨리즘(6문항), 자기애(6문항), 정신병질(6문항), 가학성(5문항)과 같은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점의 범위는 23점에서 115점이며, Likert의 5점 척도로 ‘매우 아니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평정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1차 조사에서 .90, 2차 조사에서 .85로 나타났다.

강간 통념 수용도 척도. 강간 통념 수용도 척도는 Burt(1980)가 개발한 척도를 이석재(1999)가 번안하고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20개 문항으로, 성폭행 피해의 책임귀인(8문항), 피해자의 성격험(4문항), 음란성과 강간에 대한 허위조작(5문항), 이성행동에 대한 오해(3문항)와 같은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점의 범위는 20점에서 180점이며, Likert의 9점 척도로 ‘매우 부정’ 1점에서부터 ‘매우 긍정’ 9점으로 평정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강간 통념에 대한 수용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96으로 나타났다.

개정판 갈등 척락 척도(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2: CTS-2). 갈등 척락 척도는 Straus, Hanby, Boney-McCoy와 Sugarman(1996)이 개발한 척도를 김정란(1999)이 번안하고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22개 문항으로, 심리적 폭력행동(11문항), 신체적 폭력행동(7문항), 성적 폭력행동(4문항)와 같은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점의 범위는 22점에서 88점이며, Likert의 4점 척도로 ‘전혀 없음’ 1점에서부터 ‘자

주' 4점으로 평정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 (Cronbach's α)는 .96으로 나타났다.

공격성 척도(Aggression Questionnaire: AQ). 본 연구에서는 Buss와 Perry(1992)가 개발한 공격성 질문지를 권석만과 서수균(2002)이 번역하여 수정한 한국판 공격성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문항 수는 신체적 공격성 9개 문항, 언어적 공격성 5개 문항, 분노감 7개 문항, 적대감 8개 문항으로 각 문항은 Likert의 5점 척도로 29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약간 그렇지 않다' 2점, '웬만큼 그렇다' 3점, '꽤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성의 특징이 강한 것이다. 4개의 하위요인은 첫째, 신체적 공격성은 타인의 신체에 공격성을 가하고자 하는 행동, 둘째, 언어적 공격성은 언어를 매개로 하여 위협하고 저주하는 행동, 셋째, 분노감은 분하고 화를 느끼는 감정, 넷째 적대감은 적으로 여기는 감정이다. 본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89으로 나타났다.

한국어판 대인관계 반응성 척도(Korean Version of 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대인관계 반응성 척도는 Davis(1980)가 개발한 척도를 박성희(1994)가 번안하고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28개 문항으로 관점취하기(7문항), 상상하기(7문항), 공감적 관심(7문항), 개인적 고통(7문항)와 같은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점의 범위는 28점에서 140점이며,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평정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83으로 나타났다.

분석 방법

연구 2에서는 SPSS 23을 활용하여 수집된 자료들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본 연구에서의 수렴타당도와 변별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각 척도와와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 내적 일치도(Cronbach's α)와 반분계수를 확인하였다. 셋째,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 참여자 일부인 108명에게 약 4주 간격으로 SD4-K를 시행하고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수렴·변별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강간통념척도, 갈등책략척도, 공격행동척도, 공감척도의 상관분석을 진행하였고 이는 표 1에 제시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강간통념척도, $r = .47, p < .01$, 갈등책략척도, $r = .50, p < .01$, 공격행동척도, $r = .59, p < .01$ 와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반면 공감척도는 유의미한 수준의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신뢰도분석

SD4-K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문항내적 합치도(Cronbach α), 반분계수를 살펴보았다. 먼저 SD4-K의 내적합치도는 .88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분계수도 .74로 적절히 높은 수준이었다. SD4의 각 요인별 내적합치도에서는 자기에(.88), 가학성(.83)는 높은 수준으로 마키아벨리즘(.76), 정신병질(.77)은 적절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반분계수는 자기에(.82)로 높은 수준이었고

표 3. 수렴 및 변별타당도 검증

		한국판 단축형 어둠의 성격 4요소 척도 (SD4-K)				
		합	Mach	Narc	Psyc	Sadi
강간통념 (N=322)	합	.47***	.18**	.24***	.48***	.54***
	책임귀인	.35***	.12*	.16**	.37***	.43***
	성경험	.47***	.20**	.24***	.47***	.55***
	허위조작	.46***	.18**	.27***	.45***	.50***
	오해	.47***	.19***	.25***	.49***	.52***
갈등책략 (N=322)	합	.50***	.23***	.27***	.52***	.51***
	심리적폭력행동	.41***	.21***	.22***	.43***	.40***
	신체적폭력행동	.49***	.19***	.26***	.52***	.54***
	성적폭력행동	.52***	.23***	.30***	.51***	.55***
공격행동 (N=331)	합	.59***	.30***	.16**	.59***	.54***
	신체공격성	.55***	.19**	.21**	.49***	.57***
	언어적공격성	.43***	.10	.21**	.44***	.40***
	분노감	.34***	.17**	.02	.40***	.31***
	적대감	.46***	.39***	.04	.48***	.35***
Davis 대인관계 반응성 (N=331)	합	.02	.16**	.05	.02	-.17**
	관점취하기	.08	.19**	.08	.04	-.10
	상상하기	-.04	-.04	.13*	-.05	-.15**
	공감적관심	.02	.01	.14*	-.02	-.20***
	개인적고통	.02	.25**	-.19***	.06	-.05

주 1. Mach 마키아벨리즘, Narc 자기애, Psyc 정신병질, Sadi 가학성

주 2. * $p < .05$, ** $p < .01$, *** $p < .001$

마키아벨리즘(.70), 정신병질(.69), 가학성(.78)은 적절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SD4-K를 구성하는 문항들이 안정적으로 일관성을 나타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참여자 일부($n=108$)에 대해 SD4-K를 약 4주 간격으로 재 실시하였다. 산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전체 척도에서 높은 상관이 산출되었다, $r = .68, p < .001$. 하위요인에서는 자기애, $r = .70, p < .001$, 가학성, $r = .73, p < .001$, 은 매우 강한 상관, 정신병질, $r = .67, p < .001$, 에서는 높은 상관, 마키아벨리즘, $r = .47, p < .001$, 에서는 중간정도의 상관이 산출되었다. Rosenthal(1991)에 따르면 상관계수가 .50 이상일

경우 강한 상관, .70 이상의 경우 매우 강한 상관이라 제시하였다. 따라서 대부분의 요인에서 보여준 높은 상관은 이 척도의 신뢰도가 안정적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이를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 내적합치도($N = 653$) 및 검사-재검사 신뢰도($n = 108$) 결과

	내적합치도 (N=653)	Guttman 반분계수 (N=653)	검사-재검사 신뢰도 (N=108)
Mach	.76	.70	.47**
Narc	.88	.82	.70**
Psyc	.77	.69	.67**
Sadi	.83	.78	.73**
전체	.88	.74	.68**

주. ** $p < .01$

논 의

연구 2를 실시한 결과 SD4-K는 다양한 분석을 통해 타당도와 신뢰도가 입증되었다. 첫째, SD4-K는 강간통념수용도와 유의한 관련성을 보여 척도의 수렴타당도를 확인하였다. 강간통념은 강간에 대한 그릇된 통념으로, 본 연구에서 강간통념 수용 점수와 SD4-K 점수가 유의한 정적인 상관을 보였으며 어둠의 성격 수준이 높을수록 강간통념을 수용하는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강간통념을 수용하는 데 있어 어둠의 성격 특성이 강간에 대한 잘못된 신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시사된다(Boland, 2018; Jonason, Girgis, & Milne-Home, 2017; Sanchez-Ruiz, El Ahmad, Karam, & Saliba, 2021). 어둠의 특성 중 가학증과 강간통념 수용과의 관련성이 가장 높았는데 타인의 고통을 즐기는 가학증의 성격적 특성이 강간통념과 강한 상관성이 있다는 선행연구를 뒷받침한다(Boland, 2018; Buckels, Jones et al., 2013; Russell & King, 2016).

둘째, SD4-K 점수는 갈등척락 척도 및 공격행동 척도 점수와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으며 이는 어둠의 성격과 가까운 특성일수록 폭력 및 공격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Buckels, Jones et al., 2013; Carton & Egan, 2017; Mouilso & Calhoun, 2013; Westhead & Egan, 2015). 어둠의 성격 중 정신병질이 폭력 및 공격행동과 가장 강한 상관을 보였는데, 정신병질 성격을 가진 사람은 죄책감, 후회, 공감이 부족한 특성이 있어 타인의 고통을 인지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고통에 영향을 받지 않는 특성 때문으로 시

사된다(Carton & Egan 2017; Glenn, Kurzban, & Raine, 2011; Hare, 1980; Pailing, Boon, & Egan, 2014). 자기에는 공격행동의 하위 요인 중 신체 공격성과 언어적 공격성은 유의한 상관을 보인 반면 분노감과 적대감과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셋째, 대인관계 반응성과 관련하여 SD4-K의 변별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자기애와 정신병질은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으나 가학성과 마키아벨리즘은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 가학성과 대인관계 반응성 점수와의 관련성을 보면 상상하기와 공감적 관심에서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가학증의 주요 특징이 타인에게 고통을 유발하려는 성향인 반면, 상상하기와 공감적 관심은 타인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보거나 타인의 불행에 동정심을 느끼는 것으로 이 둘은 상반되는 특징임을 시사한다(Buckels & Paulhus, 2013; Córdova, Delgado, & Fernández, 2018; Kowalski, Pierro, Plouffe, Rogoza, & Saklofske, 2020). 마키아벨리즘은 대인관계 반응성 점수 중 관점취하기와 개인적 고통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이는 마키아벨리즘 성향의 사람들이 공감이 부족하다는 연구와 상반되는 결과이다(Andrew, Cooke, & Muncer, 2008; Blötner, Steinmayr, & Bergold, 2021; Golbabaei, Barati, Haromi, Ghazazani & Borhani, 2022; Wastell & Booth, 2003).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마키아벨리즘의 성향이 타인의 고통과 관점을 수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Keyser와 Gazzola(2014)는 공감을 능력(capacity)과 성향(propensity)으로 분류할 필요성을 주장했다. 어둠의 성격의 경우 공감성향과는 부적 상관이 있으나 인지적 능력과는 상관이 있음을 밝히며,

인지적 능력이 높다면 공감능력에 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Blötner et al., 2021; Kajonius & Björkman, 2020). 그 중 마키아벨리즘은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도를 가지고 타인에게 접근하는 성향으로(Christie & Geis, 1970), 공감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음이 시사된다(Ali, Amorim, & Chamorro-Premuzic, 2009; Paal & Bereczkei, 2007). 또한 대인관계 반응성 척도의 하위요인 중 개인적 고통은 공감보다 부정적인 감정과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밝히며 일반적으로 타인에게 악영향을 주는 특징과 정적 상관이 있음을 밝혔다(Murphy et al., 2020). 따라서 어둠의 성격의 성향인 사람들을 공감능력이 부족하다고 특징짓기보다는 성격별로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SD4-K는 적합한 수준의 신뢰도를 보였다. 전체 척도뿐 아니라 각 소척도에서도 최소 .76 이상의 내적 합치도를 보여 신뢰로운 척도이면서 내용의 일관성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였다. 이는 이 척도의 개발연구에서도 .7~.8의 내적합치도가 보고된 것과 동일한 수치를 보여준다(Paulhus et al., 2021). 반분계수에서도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보여 각 문항이 일관성있는 내용을 측정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검사-재검사 신뢰도에서는 전체 점수와 자기애, 정신병질, 가학성에서 모두 적절한 수준의 신뢰도를 보인 반면, 마키아벨리즘에서만 .47의 다소 낮은 수치가 나타났다. 이는 후속연구를 통해 그 안정성에 대해 반복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종합 논의

이 연구는 ‘사회적으로 혐오스러운 성격’으로 여겨지는 ‘어두운 측면’을 측정하는 SD4(Short Dark Tetrad)를 한국어로 변안하고, 국내 표본을 대상으로 타당화하여 국내에서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1에서는 문항 분석 및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SD4-K의 문항을 확정하고 적합한 수준의 요인구조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요인별 일부 문항의 변동이 있으나 기존의 4요인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국내 표본에서도 4요인의 측정 모형의 적합도가 안정적으로 나타났다. 연구 2에서는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강간통념, 갈등책략, 공격행동과 각 요인들이 유의한 상관을 보이는 것과 일부 척도에서 대인관계 반응성과 부정 상관을 보임을 발견하여 이 척도가 적절한 구성개념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내적합치도, 반분신뢰도, 검사-재검사 신뢰도 등의 각종 지표에서 일관성이 있고 신뢰할만한 수준의 척도임을 확인하였다. 관련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타당화한 SD4-K의 개념적인 측면과 관련하여 우선 SD3에서 SD4로 개선되면서 원저자가 발견했던 척도의 완성성과 이점들이 한국판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척도는 일상 기능에서 손상을 보이지는 않으나, 사회적으로 혐오스럽게 받아들여지는 행동 양상을 측정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행동 양상은 대인관계 장면에서 오만하고 계산적이며, 냉담하고 교활한 모습을 보이며 결국, 타인에게 무관심하며 자신이 관계를 형성하며 유지하는데 지배적으로 군림하려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마키아벨리

즘과 자기에, 정신병질이라는 세 요소로 이를 측정하는 SD3(Jones & Paulhus, 2010)에 더하여 가학성을 포함한 것은 가학성이 정서적 냉담성과 공감의 결여와 같은 앞선 3요인과 특징을 공유하며, 개인의 만족을 위하여 착취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고유한 특징을 보이기 때문이었다(Heym et al., 2019; Jones & Figueredo, 2013; Nell, 2006; Pajevic, Vukosavljevic-Gvozden, Stevanovic, & Neumann, 2018; Paulhus, 2014). 이 연구에서 가학성이 포함된 네 개의 요인구조는 SD3의 요인구조에 비해 개념구조가 더 명확해졌음이 드러났다. 특히 SD3에 대한 10년간의 메타분석에서는 마키아벨리즘과 정신병질의 상관인 .58으로 나타나는 것이 지적되었고(Muris et al., 2017), 본래의 개발 연구에서도 .47로 나타났었다(Paulhus, 2014). 그러나 가학성이 추가되면서 이 개념들간의 구분이 보다 명확해져서 SD4의 개발 논문에서는 두 척도간의 상관인 .31~.32로 낮아졌다고 밝혔다(Paulhus et al., 2021). 우리나라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서, SD3의 한국판 타당화 연구에서는 아예 두 요인을 하나로 합쳐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SD3가 이름과 달리 마키아벨리즘-사이코패스와 자기에의 두 요인으로 결론지워졌었다(박종철 외, 2021).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마키아벨리즘과 정신병질이라는 두 요인간의 상관인 .24로 그다지 높지 않게 나타나면서 4개의 요인이 잘 구분되는 것으로 드러나서 SD3를 SD4로 개선한 효과가 동일하게 확인되었다.

둘째, 타당도 검증에서 살펴본 여러 개념들간의 관계는 SD4-K가 어두운 성격, 즉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고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성격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잘 증명하였다. 전체 척도의 합

과 각 소척도는 강간통념 및 갈등책략의 모든 척도와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이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성격을 측정하는 이 척도가 내면의 인지적인 측면을 측정하는 강간에 대한 대표적인 인지적 왜곡이자 잘못된 신념으로 알려진 강간통념과 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차원에서의 심리적폭력행동, 신체적폭력행동, 성적 폭력행동 및 공격행동들과도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이전 연구들에서 성적인 문제가 SD4에 새로 추가된 가학성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었던 것과 유사한 결과가 이 연구에서도 나타났다. 강간통념은 가학성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고, 갈등책략 중에서도 성적 폭력행동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다. 이는 원문으로 실시된 척도들에서 보인 가학과 성적 공격성 간의 상관(Morelli et al., 2021)을 한국판 SD4가 유사하게 보여줌으로써 한국어로 타당하게 번안되었고, 개념적으로도 동질성을 보인다는 것을 증명한다. 또한 이러한 관계는 SD4-K가 단순히 성격을 측정하는 개념적인 도구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생활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행동들을 설명하고 예측해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SD4-K는 향후 성범죄를 비롯한 다양한 폭력, 비행, 범죄 장면 및 사회 현상의 설명에 활용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예를 들면, 어둠의 성격 특성은 스토킹을 예측하는 데 유용했다(Boon & Sheridan, 2002; Smoker & March, 2017). 그 중에서도 가학성이 높은 스토킹은 피해자의 고통으로부터 즐거움을 얻기 위해 스토킹을 하지만(Miller, 2012), 정신병질이 높은 스토킹의 경우 정서적 결핍으로 인한 욕구가 스토킹의 위험 요소였다(Storey, Hart, Meloy, & Reavis, 2009). 또한,

어둠의 성격과 관련한 연구는 청소년 비행(Büchel et al., 2017), 폭력(Carton & Egan, 2017), 약물중독(Everit & Robbins, 2016), 성범죄(Boon & Sheridan, 2002)와 같은 분야와 관련지어 연구되어 왔다. 보다 폭넓은 주제로는 친밀한 관계에서의 어려움(Ali & Chamorro-Prenuzic, 2010)이나 정치적 극단주의(Duspara & Greitemeyer, 2017)와 같은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 요소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다양한 범죄가 발생할 뿐 아니라 세대, 성별, 이념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입증된 이 척도를 활용하면 이러한 부정적인 사회 현상의 설명이나 변화의 방법을 찾기 위한 후속 연구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

넷째, SD4-K의 후속연구들을 통해 범죄를 비롯한 사회의 어두운 현상에 대해 예방, 개선, 치료를 시도할 필요가 있겠다. 이 척도에 포함된 네 가지 성격은 각각의 주제로도 연구되어 왔다. 특히 정신병리 영역에서 자기애적 성격의 중요성과 범죄 영역에서 정신병질 성격의 중요성은 이미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마키아벨리즘에 대한 연구는 다소 적고, 가학성은 성범죄나 성적 일탈과 연관하여 연구되어온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를 통합하여 측정하고 냉담성과 공감의 결여와 같은 공통적인 특징과 그 공통적인 특징을 바탕으로 한 교활함(마키아벨리즘), 특권의식(자기애), 난폭함(정신병질), 비열함(가학성)이라는 독특성(Paulhus et al., 2021)을 이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사회현상을 보는 입체적인 틀을 제시해줄 것이다. 적절한 이해는 연관된 부정적인 행동의 예측과 개입의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이며, 각 성격에 따른 분류, 처우 및 차별적인

교화 프로그램 등의 개발에 유용할 것이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도 있다. 첫째, 본 척도는 최초 제작될 당시, 서구권 표본을 대상으로 개념이 형성되어 구성되었다. 즉, '사회적으로 혐오스러운 성격'으로 대표되는 다양한 '성격의 어두운 측면'은 사회문화적인 차이에 따라 두드러지는 양상이 다를 수 있겠다. 비록 SD4-K가 우리나라에서도 신뢰롭고 타당한 척도로 검증되었지만,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발견될 수 있는 독특한 성격적 양상에 대해서는 탐색되지 못하였다. SD3를 사용한 Arseneault와 Catano (2019) 연구의 경우, 우리나라와 중국, 필리핀 표본을 대상으로 SD3 측정하였을 때 SD3의 요인 구조가 적절하게 도출되지 못하였으며, 마키아벨리즘은 높은 경향을 보이는 반면, 정신병질은 낮은 경향을 보이는 등의 결과가 사회문화적인 차이로 해석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사회문화에 따른 개인의 올바른 행동 양상을 규정하는 차이에 의거하여, 주축이 될 수 있는 '성격의 어두운 측면'이 존재할 수 있겠다. 문항의 구성부터 재작업을 하는 방법도 있으나, 이는 원칙도를 활용한 국제 비교 연구 등의 외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둘째, SD4의 문항 중 솔직하게 문항에 응답할 경우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비칠 것을 염려할 수 있는 문항이 있는바, 사회적 바람직성이 작용하여 전체적인 응답 평균이 낮게 나타났을 수 있겠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후속 연구에서는 본 척도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 바람직성에 기인한 응답 여부를 고려할 수 있도록 사회적 바람직성을 측정하는 척도 등을 추가적으로 활용하여 응답의 타당도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요인분석 과정 중 성별과 같은 하위 집단 간의 동일성 검증(invariance testing)을 실시하지 않았다. 연구 1에서 활용한 성별 간 표본은 각 300여 명이며, 각 300여명이 20대에서 50대 연령대에 나뉘어 분포되어있음에 따라 동일성 검증을 실시할 수 있는 부족한 표본이라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각 요인별 및 전체 척도에서 획득한 점수의 유의미한 의미를 설명해줄 수 있는 기준점과 이를 지지할 규준을 제시하지 못했다. 척도의 최초 개발자나 후속연구들 역시 기준점이나 규준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SD4의 하위 요인에 부합하는 국내 대조군과의 비교를 바탕으로 잠재프로파일 및 ROC curve분석 등을 활용하여 실제 국내 실정에 맞는 기준점(cut off)를 제시할 수 있다면 단축형 검사로서의 현장 활용도 및 해석의 유용성을 높일 수 있겠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병리적 증상을 즉각적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잠재적 위험성을 함유하여 건강하지 못한 대인관계 양상을 나타낼 수 있는 성격적 특질을 잘 측정하는 것으로 알려진 SD4 척도를 국내 표본에 맞추어 SD4-K로 타당화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검사는 적은 수의 문항으로 신뢰롭고 타당하게 어둠의 성격을 측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성과 활용성이 높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김정란 (1999). 대학생의 이성교제 중 폭력과 대처행동. *대한가정학회지*, 37(8), 73-90.
 권석만, 서수균 (2002). 한국판 공격성 질문지의 타당화 연구.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1(2),

487-501.

박성희 (1994). *공감, 공감적 이해*. 서울:원미사.
 박주화, 조광수 (2014). 결과가 나쁘면 의도도 나쁘다: 한국인의 의도 및 의도성 판단. *한국심리학회지: 인지 및 생물*, 26(4), 317-341.
 박종철, 오현주, 이나희, 손하림, 이동귀, 배병훈 (2021). 한국판 어두운 성격 3요소 단축형의 요인구조와 타당화 지표.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34(3), 511-539.
 서원진, 이수민, 김미리혜, 김재중 (2018). 탐색적 요인 분석 연구의 현황과 제언. *사회과학연구*, 29(1), 177-193.
 송원영 (2021). 디지털 성폭력 가해 경험자와 테이트 성폭력 가해 경험자의 성격 특성, 성관련 통념 및 성중독의 차이. *상담심리교육복지*, 8(6), 41-55.
 이석재 (1999). 강간통념척도의 개발과 타당도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2), 131-148.
 이주원 (2021). 월슨 성적 공상 질문지 타당화 연구. *차의과학대학교 임상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Ali, F., Amorim, I. S., & Chamorro-Premuzic, T. (2009). Empathy deficits and trait emotional intelligence in psychopathy and Machiavellianis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7(7), 758-762.
 Ali, F., & Chamorro-Premuzic, T. (2010). The dark side of love and life satisfaction: Associations with intimate relationships, psychopathy and Machiavellianis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8(2), 228-233.
 Allport, G. W. (1937). *Personality: A Psychological Interpretation*. Oxford, England: Holt.
 Andrew, J., Cooke, M., & Muncer, S. J. (2008). The relationship between empathy and Machiavellianism: An alternative to empathizing - systemizing theor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4(5), 1203-1211.
 Arseneault, R., & Catano, V. (2019). An extension of the dark triad and five factor model to three

- Asian societies. *Asi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2(4), 358-368.
- Barber, N. (1998). Sex differences in disposition towards kin, security of adult attachment, and sociosexuality as a function of parental divorce. *Evolution and Human Behavior*, 19(2), 125-132.
- Barnett, M. A., & Thompson, S. (1985). The role of perspective taking and empathy in children's Machiavellianism, prosocial behavior, and motive for helping.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46(3), 295-305.
- Bettison, T. M., Mahmut, M. K., & Stevenson, R. J. (2013).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pathy and olfactory tasks sensitive to orbitofrontal cortex function in a non-criminal student sample. *Chemosensory Perception*, 6(4), 198-210.
- Blais, M. A., & Little, J. A. (2010). Toward an integrative study of narcissism. *Personality Disorders: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1(3), 197-199.
- Blötner, C., Steinmayr, R., & Bergold, S. (2021). Malicious mind readers? A meta-analysis on Machiavellianism and cognitive and affective empath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81, 1-13.
- Boland, G. (2018). *The Dark Tetrad and Rape Myth Acceptance*. Honors Research Projects. University of Akron, USA.
- Boon, J., & Sheridan, L. (Eds.). (2002). *Stalking and psychosexual obsessions: Psychological perspectives for prevention, policing and treatment* (Vol. 6). Wiley-Blackwell.
- Brown, T. A., Sautter, J. A., Littvay, L., Sautter, A. C., & Beames, B. (2010). Ethics and personality: Empathy and narcissism as moderators of ethical decision making in business students. *Journal of Education for Business*, 85(4), 203-208.
- Büchel, C., Peters, J., Banaschewski, T., Bokde, A. L., Bromberg, U., Conrod, P. J., & Knutson, B. (2017). Blunted ventral striatal responses to anticipated rewards foreshadow problematic drug use in novelty-seeking adolescents. *Nature communications*, 8(1), 1-11.
- Buckels, E. E., Jones, D. N., & Paulhus, D. L. (2013). Behavioral confirmation of everyday sadism. *Psychological science*, 24(11), 2201-2209.
- Buckels, E. E., & Paulhus, D. L. (2013, March). *Everyday sadism and the Dark Tetrad of personality*. Poster presented at the 1st meeting of the Personality Psychology Foundation, Stellenbosch, South Africa.
- Buckels, E. E., Trapnell, P. D., Andjelovic, T., & Paulhus, D. L. (2019). Internet trolling and everyday sadism: Parallel effects on pain perception and moral judgment. *Journal of personality*, 87(2), 328-340.
- Burt, M. R. (1980). Cultural myths and supports for rap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8(2), 217.
- Buss, A. H., & Perry, M. (1992). The aggression questionnai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3), 452.
- Campbell, W. K., & Foster, J. D. (2007). *The self* pp. 115-138). New York: Psychology Press.
- Carton, H., & Egan, V. (2017). The dark triad and intimate partner violenc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05(1), 84-88.
- Chester, D. S., DeWall, C. N., & Enjaian, B. (2019). Sadism and aggressive behavior: Inflicting pain to feel pleasur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45(8), 1252-1268.
- Christie, R., & Geis, F. L. (1970). *Studies in Machiavellianism*. New York, NY: Academic Press.
- Córdova, P., Delgado, J., & Fernández, A. M. (2018). Behavioral evidence of everyday sadism in a novel

- sample of Chilean students. *Human Ethology Bulletin*, 33(4), 49-60.
- Corral, S., & Calvete, E. (2000). Machiavellianism: Dimensionality of the MACH-IV and its relation to self-monitoring in a Spanish sample. *Spanish Journal of Psychology*, 3(1), 3-13.
- Craker, N., & March, E. (2016). The dark side of Facebook: The Dark Tetrad, negative social potency, and trolling behaviour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02, 79-84.
- Crysel, L. C., Crosier, B. S., & Webster, G. D. (2013). The Dark Triad and risk behavior.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4(1), 35-40.
- Davis, M. H. (1980).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University of Texas, Austin.
- Den Hartog, D. N., & Belschak, F. D. (2012). Work engagement and Machiavellianism in the ethical leadership process. *Journal of business ethics*, 107(1), 35-47.
- Duspara, B., & Greitemeyer, T. (2017). The impact of dark tetrad traits on political orientation and extremism: an analysis in the course of a presidential election. *Heliyon*, 3(10), e00425.
- Egan, V., Hughes, N., & Palmer, E. J. (2015). Moral disengagement, the dark triad, and unethical consumer attitud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76, 123-128.
- Everitt, B. J., & Robbins, T. W. (2016). Drug addiction: updating actions to habits to compulsions ten years on. *Annual Review of Psychology*, 67(1), 23-50.
- Furnham, A. (2010). *The Elephant in the Boardroom: Researching derailed, incompetent and failed Leaders* (pp. 3-33). Palgrave Macmillan, London.
- Furnham, A., Richards, S. C., & Paulhus, D. L. (2013). The Dark Triad of personality: A 10 year review.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7(3), 199-216.
- Furnham, A., & Trickey, G. (2011). Sex differences in the dark side trai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0(4), 517-522.
- Glenn, A. L., Kurzban, R., & Raine, A. (2011). Evolutionary theory and psychopathy.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6(5), 371-380.
- Golbabaei, S., Barati, M., Haromi, M. E., Ghazazani, N., & Borhani, K. (2022). Development and construct validation of a short form of the 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in Iranian community. *Current Psychology*, 1-13.
- Hare, R. D. (1980). A research scale for the assessment of psychopathy in criminal population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2), 111-119.
- Hare, R. D. (1983). *Without conscience: The disturbing world of the psychopaths among us*. New York, NY: Simon & Schuster.
- Harms, P. D., Spain, S., & Hannah, S. (2011). Leader development and the dark side of personality. *Leadership Quarterly*, 22(3), 495-509.
- Heym, N., Firth, J. L., Kibowski, F., Sumich, A. L., Egan, V., & Bloxsom, C. (2019). Empathy at the heart of darkness: Empathy deficits that bind the Dark Triad and those that mediate indirect relational aggression. *Frontiers in Psychiatry*, 10, 95-100.
- Hogan, R., & Hogan, J. (1997). *Hogan Development Survey manual*. Tulsa, OK: Hogan Systems.
-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1), 1-55.
- Jakobwitz, S., & Egan, V. (2006). The dark triad and normal personality trai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0(2), 331-339.

- Johnson, L. K., Plouffe, R. A., & Saklofske, D. H. (2019). Subclinical sadism and the Dark Triad: Should there be a “Dark Tetrad”? *Journal of Individual Differences, 40*(3), 127-133.
- Jonason, P. K., Girgis, M., & Milne-Home, J. (2017). The exploitive mating strategy of the Dark Triad traits: Tests of rape-enabling attitudes. *Archives of sexual behavior, 46*(3), 697-706.
- Jonason, P. K., & Kavanagh, P. (2010). The dark side of love: Love styles and the Dark Triad.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9*(6), 606-610.
- Jonason, P. K., Koenig, B. L., & Tost, J. (2010). Living a fast life. *Human Nature, 21*(4), 428-442.
- Jonason, P. K., & Krause, L. (2013). The emotional deficits associated with the Dark Triad traits: Cognitive empathy, affective empathy, and alexithymia.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5*(5), 532-537.
- Jonason, P. K., Li, N. P., & Buss, D. M. (2010). The costs and benefits of the Dark Triad: Implications for mate poaching and mate retention tactic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8*(4), 373-378.
- Jonason, P. K., Li, N. P., Webster, G. D., & Schmitt, D. P. (2009). The dark triad: Facilitating a short term mating strategy in men.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23*(1), 5-18.
- Jonason, P. K., & Webster, G. D. (2010). The Dirty Dozen: A concise measure of the dark triad. *Psychological Assessment, 22*(2), 420-432.
- Jones, D. N., & Figueredo, A. J. (2013). The core of darkness: Uncovering the heart of the Dark Triad.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27*(6), 521-531.
- Jones, D. N., & Paulhus, D. L. (2010). *Handbook of interpersonal psychology: Theory, research, assessment and therapeutic interventions* (pp. 249-267). Canada : Wiley.
- Jones, D. N., & Paulhus, D. L. (2014). Introducing the short dark triad (SD3) a brief measure of dark personality traits. *Assessment, 21*(1), 28-41.
- Kaiser, R. B., & Hogan, R. (2007). *Being there even when you are not: Leading through strategy, structures, and systems* (pp. 173-194). UK: Elsevier.
- Kajonius, P. J., & Björkman, T. (2020). Individuals with dark traits have the ability but not the disposition to empathiz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55*, 1-5.
- Kashmiri, S., Nicol, C. D., & Arora, S. (2017). Me, myself, and I: influence of CEO narcissism on firms' innovation strategy and the likelihood of product-harm crises. *Journal of th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45*(5), 633-656.
- Keyzers, C., & Gazzola, V. (2014). Dissociating the ability and propensity for empathy. *Trends in cognitive sciences, 18*(4), 163-166.
- Kosson, D. S. (2009). Recent advances in psychopathy research. *The Canadian Journal of Psychiatry, 54*(12), 787-790.
- Kotov R., Gamez W., Schmidt F., & Watson D. (2010). Linking “big” personality traits to anxiety, depressive, and substance use disorders: a meta-analysis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36*(5), 768-821.
- Kotov, R., Krueger, R., Watson, D., Achenbach, T., Althoff, R., & Bagby, R. (2017). The Hierarchical Taxonomy of Psychopathology (HiTOP): a dimensional alternative to traditional nosologie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26*(4), 454-477.
- Kowalski, C. M., Di Pierro, R., Plouffe, R. A., Rogoza, R., & Saklofske, D. H. (2020). Enthusiastic acts of evil: The Assessment of Sadistic Personality in Polish and Italian populations. *Journal of*

- Personality Assessment*, 102(6), 770-780.
- Kowalski, R. M. (2001). *Behaving badly: Aversive behaviors I interpersonal relationships*. Washington, DC: APA press.
- Lomax, R. (2013). Introduction to structural equation modeliLebreton, J. M., Binning, J. F., & Adorno, A. J. (2006). Subclinical psychopaths. In J. C. Thomas & D. Segal (Eds.), *Comprehensive Handbook of Personality and Psychopathology* (Vol.1, pp. 388-411). New York: Wiley.ng. In *Applied quantitative analysis in education and the social sciences* (pp. 257-276). Routledge.
- Lynam, D. R., & Widiger, T. A. (2001). Using the five-factor model to represent the DSM-IV personality disorders: An expert consensus approach.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0(3), 401-412.
- MacCallum, R. C., & Austin, J. T. (2000). Application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sychological research.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1, 201-226.
- Maples, J. L., Lamkin, J., & Miller, J. D. (2014). A test of two brief measures of the dark triad: The Dirty Dozen and the Short Dark Triad. *Psychological Assessment*, 26(1), 326-331.
- Marcus, D. K., Fulton, J. J., & Edens, J. F. (2013). The two-factor model of psychopathic personality: evidence from the psychopathic personality inventory. *Personality Disorders: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4(1), 140-154.
- Miller, J. D., Lynam, D. R., Widiger, T. A., & Leukefeld, C. (2001). Personality disorders as extreme variants of common personality dimensions: Can the five factor model adequately represent psychopathy? *Journal of Personality*, 69(2), 253-276.
- Miller, L. (2012). Stalking: Patterns, motives, and intervention strategies.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7(6), 495-506.
- Mitchell, D. G., Colledge, E., Leonard, A., & Blair, R. J. R. (2002). Risky decisions and response reversal: is there evidence of orbitofrontal cortex dysfunction in psychopathic individuals? *Neuropsychologia*, 40(12), 2013-2022.
- Moor, L., & Anderson, J. R. (2019).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of the relationship between dark personality traits and antisocial online behaviour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44, 40-55.
- Moreira, D., Azeredo, A., & Barbosa, F. (2019). Neurobiological findings of the psychopathic personality in adults: one century of history.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47, 137-159.
- Morelli M, Urbini F, Bianchi D, Baiocco R, Cattelino E, Laghi F, Sorokowski P, Misiak M, Dziekan M, Hudson H, Marshall A, Nguyen T, Mark L, Kopecky K, Szotkowski R, Toplu Demirtaş E, Van Ouytsel J, Ponnet K, Walrave M, Zhu T, Chen Y, Zhao N, Liu X, Voiskounsky A, Bogacheva N, Ioannou M, Synnott J, Tzani-Pepelasi K, Balakrishnan V, Okumu M, Small E, Pavlova Nikolova S, Drouin M, Chirumbolo A. (2021). The Relationship between Dark Triad Personality Traits and Sexting Behaviors among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across 11 Countries.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8(5), 1-25.
- Mouilso, E. R., & Calhoun, K. S. (2013). The role of rape myth acceptance and psychopathy in sexual assault perpetration. *Journal of Aggression, Maltreatment & Trauma*, 22(2), 159-174.
- Mulder, R. T. (2012). Cultural aspects of personality disorder. In T. A. Widiger (Ed.), *Oxford handbook of personality disorders* (pp. 260-274).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Muris, P., Merckelback, H., Otgaar, H., & Meijer, E.

- (2017). The Malevolent Side of Human Nature: A meta-Analysis and Critical Review of the Literature on the Dark Triad (Narcissism, Machiavellianism, and Psychopathy).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12*(2), 183-204.
- Murphy, B. A., Costello, T. H., Watts, A. L., Cheong, Y. F., Berg, J. M., & Lilienfeld, S. O. (2020). Strengths and weaknesses of two empathy measures: A comparison of the measurement precision, construct validity, and incremental validity of two multidimensional indices. *Assessment, 27*(2), 246-260.
- Nell, V. (2006). Cruelty's rewards: The gratifications of perpetrators and spectators. *Behavioral and Brain Sciences, 29*(3), 211-224.
- O'Boyle, E. H. Jr, Forsyth, D. R., Banks, G. C., & McDaniel, M. A. (2012). A meta-analysis of the Dark Triad and work behavior: A social exchange perspectiv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7*(3), 557-579.
- O'Meara, A., Davies, J., & Hammond, S. (2011). The psychometric properties and utility of the Short Sadistic Impulse Scale (SSIS). *Psychological assessment, 23*(2), 523-531.
- Paal, T., & Bereczkei, T. (2007). Adult theory of mind, cooperation, Machiavellianism: The effect of mindreading on social relation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3*(3), 541-551.
- Pailing, A., Boon, J., & Egan, V. (2014). Personality, the Dark Triad and violenc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67*(C), 81-86.
- Pajević, M., Vukosavljević-Gvozden, T., Stevanović, N., & Neumann, C. S. (2018).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ark Tetrad and a two-dimensional view of empath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23*, 125-130.
- Patrick, C. J. (1994). Emotion and psychopathy: Startling new insights. *Psychophysiology, 31*(4), 319-330.
- Patrick, C. J., Hicks, B. M., Krueger, R. F., & Lang, A. R. (2005). Relations between psychopathy facets and externalizing in a criminal offender sample.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19*(4), 339-356.
- Paulhus, D. L. (1998). Interpersonal and intrapsychic adaptiveness of trait self-enhancement: A mixed bless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5), 1197-1208.
- Paulhus, D. L. (2014). Toward a taxonomy of dark personalities.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23*(6), 421-426.
- Paulhus, D. L., Buckels, E. E., Trapnell, P. D., & Jones, D. N. (2021). Screening for dark personalities: The Short Dark Tetrad (SD4).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ssessment, 37*(3), 208-222.
- Paulhus, D. L., & Jones, D. N. (2015). Measures of dark personalities. In *Measures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ical constructs* (pp. 562-594). Academic Press.
- Paulhus, D. L., & Williams, K. M. (2002). The dark triad of personality: Narcissism, Machiavellianism, and psychopathy.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6*(6), 556-563.
- Pfattheicher, S., Keller, J., & Knezevic, G. (2019). Destroying things for pleasure: On the relation of sadism and vandalis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40*, 52-56.
- Pina, A., Holland, J., & James, M. (2017). The malevolent side of revenge porn proclivity: Dark personality traits and sexist ideology. *International Journal of Technoethics, 8*(1), 30-43.
- Plouffe, R. A., Saklofske, D. H., & Smith, M. M. (2017). The assessment of sadistic personality: Preliminary psychometric evidence for a new measur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23*, 125-130.

- 104, 166-171.
- Raskin, R., & Hall, C. S. (1979). A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Psychological Reports, 43*(2), 590.
- Rosenthal, R. (1991). *Meta-analytic procedures for social research*. NewburyPark, CA: Sage.
- Russell, T. D., & King, A. R. (2016). Anxious, hostile, and sadistic: Maternal attachment and everyday sadism predict hostile masculine beliefs and male sexual violenc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99*(C), 340-345.
- Sanchez-Ruiz, M. J., El Ahmad, P., Karam, M., & Saliba, M. A. (2021). Rape myth acceptance in Lebanon: the role of sexual assault experience/familiarity, sexism, honor beliefs, and the Dark Triad.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70*, 1-6.
- Sanjeev, M. A., Sehrawat, A., & Santhosh Kumar, P. K. (2019). iPhone as a proxy indicator of adaptive narcissism: An empirical investigation. *Psychology & Marketing, 36*(10), 895-904.
- Smoker, M., & March, E. (2017). Predicting perpetration of intimate partner cyberstalking: Gender and the Dark Tetrad. *Computers in Human Behavior, 72*(C), 390-396.
- Southard, A. C., Noser, A. E., Pollock, N. C., Mercer, S. H., & Zeigler-Hill, V. (2015). The interpersonal nature of dark personality feature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34*(7), 555-586.
- Storey, J. E., Hart, S. D., Meloy, J. R., & Reavis, J. A. (2009). Psychopathy and stalking. *Law and Human Behavior, 33*(3), 237-246.
- Straus, M. A., Hamby, S. L., Boney-McCoy, S. U. E., & Sugarman, D. B. (1996). 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s (CTS2) development and preliminary psychometric data. *Journal of family issues, 17*(3), 283-316.
- Tucker, L. R., & Lewis, C. (1973). A reliability coefficient for maximum likelihood factor analysis. *Psychometrika, 38*(1), 1-10.
- Van Geel, M., Goemans, A., Toprak, F., & Vedder, P. (2017). Which personality traits are related to traditional bullying and cyberbullying? A study with the Big Five, Dark Triad and sadis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06*(C), 231-235.
- Wastell, C., & Booth, A. (2003). Machiavellianism: An alexithymic perspective.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2*(6), 730-744.
- Weiser, E. B. (2015). # Me: Narcissism and its facets as predictors of selfie-posting frequenc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88*(C), 477-481.
- Westhead, J., & Egan, V. (2015). Untangling the concurrent influences of the Dark Triad, personality and mating effort on violenc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88*(C), 222-226.
- Widiger, T. A., Lynam, D. R., Miller, J. D., & Oltmanns, T. F. (2012). Measures to assess maladaptive variants of the five-factor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94*(5), 450-455.
- Widiger, T. A., & Trull, T. J. (2007). Plate tectonics in the classification of personality disorder: Shifting to a dimensional model. *American Psychologist, 62*(2), 71-83.

원고접수일: 2022년 3월 29일

논문심사일: 2022년 5월 14일

게재결정일: 2022년 10월 4일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Short Dark Tetrad (SD4) Scale.

Juwon Lee
CHA University
M. A.

Jeong-A Yu
Konyang University
M. A. Graduate student

Wonyoung Song
Konyang University
Professo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SD4 (Short Dark Tetrad) scale, which measures 'socially aversive personalities' in a domestic sample, and to confirm its applicability in Korea. socially aversive personalities refers to the dark personality that does not show immediate clinical impairment, but is potentially dysfunctional and includes destructive behavioral manifestations. Measurement of the 'dark' aspect of this personality has been carried out in various contexts, from early non-clinical scenes to clinical scenes showing pathological features. In Study 1, the SD4 scale was translated into Korean for a domestic sample and the statistical properties of SD4 were checked by performing exploratory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In Study 2, the Korean version of the SD4 scale confirmed in Study 1 was compared with those measuring related concepts, and the validity of the scale was verified and reliability was confirmed. As a result of the study, in Study 1, although there were variations in some items by factor, the same four factors (Machiavellianism, narcissism, psychopathy, sadism) could be maintained as the original scale, and the fit of the measurement model was found to be stable. In Study 2, convergence and discriminatory validity could be confirmed between the Korean version of SD4 and the scale measuring related concepts.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scale was consistent and reliable in terms of internal fit, half-reliability, and test-retest reliability. Finally,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and further studies were suggested.

Keywords: Short Dark Tetrad, Machiavellianism, narcissism, psychopathy, sadism, SD4